

< 넉넉히 이기는 비결 >

로마서 8:36,37 / 새찬송가 23 (통일 23) 만 입이 내게 있으면

1. 이 세상의 진면목은 바로 투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사단과 사단의 권세에 속한 죄와의 싸움, 죄의 유혹과의 싸움, 질병과의 싸움, 문제와 저주와의 싸움, 악한 자들과의 싸움, 세상 권세와의 싸움, 악한 영들과의 싸움, 사망권세와의 싸움을 끝없이 치러야 합니다(엡6:12).

이처럼 우리의 삶 그 자체는 쉴 새 없는 투쟁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저녁이 오고 밤이 와도 쉴 수가 없습니다(욥 7:1-3). 꿈자리도 사납습니다(욥7:13,14). 고난 속에 있었던 욥은 자신의 생일까지 저주하며 탄식했습니다(욥3:26). 이 모든 것이 바로 인생의 모든 투쟁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믿음만이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요1서 5:4).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거듭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고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고 사자들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고 전쟁에서 용감하게 이방사람들의 진을 물리친 믿음의 위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히11:33,34).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롬8:36,37).

3.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일까요

중세의 성자 클레르보의 성 베르나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사랑'이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만한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기에'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기위해서' 사랑하십니다. 이처럼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는 예술가가 돈을 벌기 위해 예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술이 좋아서 예술의 아름다움을 추구할 때 진짜 예술가가 되는 것과 흡사합니다.

4.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이러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예술가가 예술을 사랑해서 예술을 하는 경지에 올라야 합니다(갈 5:6). 즉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목적도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의 복이 뒤따라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이 뒤따라오는 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만약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만약 어떤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돌아설 수 있는 얇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확신하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전심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주시실 것이다’는 사실입니다.

<적용&실천>

우리는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이유와 목적이 오직 하나님이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까?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이유와 목적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